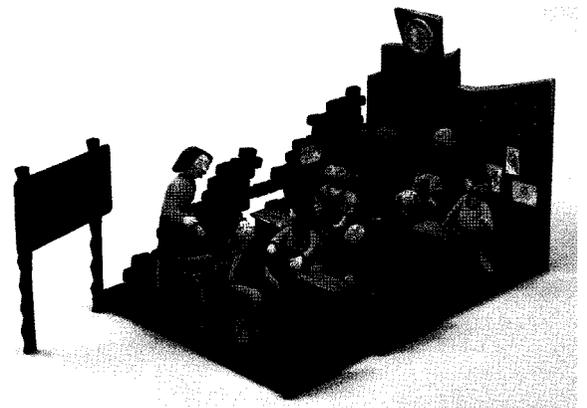


자거나 판짓하는 시간으로 변질

:: 배진술 이화여대부속고 2년(청소년명예기자)

성을 경험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또한 과거 세대에 비해 성을 접할 매체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 방대한 양의 '성정보'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올바른 '성가치' 를 심어줄 수 있는 학교 성교육은 청소년들의 필요와 욕구를 잘 소화하고 있을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2년째 다니고 있는 나는 지금까지 수차례의 성교육을 받아왔다.

기억나는 첫번째 성교육은 초등학교 5학년. 한 반에 여자들이들만 강당으로 모여서 젊은 여선생님과 동그렇게 모여앉아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이었다. 그 때에는 "성교육" 자체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불어박힌 교실의 책상에 앉아 무엇을 배운다'가 아닌지라 마냥 재밌었다.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즐거움이 더 맞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친구들과 떠들고 장난치느라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기억나지는 않는다. 한 가지 인상에 남는 일은, 마지막 즈음에 선생님께서 "초경 시작한 친구 있어요? 괜찮아요, 손들어볼래요?"라고 물으셨던 일이다.

부끄러움이 앞서던 성교육 시간

나와 친구들은 나는 안 하는데, 누가 할까? 하는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끝끝내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고 선생님은 초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생리대를 한 개씩 나눠주었다. 아이들은 생리대를 받자마자 허겁지겁 바지 주머니

속으로 넣었고 나도 덩달아 부끄러워하는 척하면서 얼른 숨겼다. 얼굴이 발그레해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숨겨야 하지?' 라고 생각했었다. 나는 얼른 초경을 하고 싶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에 생리를 시작하면 금세 어른이 될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끄러워하는 걸 이해할 수 없었다. 게다가 나와 가장 친했던 아이가 강당을 나오면서 정말 수줍은 목소리로 "나 사실은 4학년 때 시작했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길로는 '정말? 안 됐다.'는 표정을 지어보였지만 내심 부러웠다. 그 친구는 발육이 빠른 편이라 벌써부터 엄마들이 하는 브래지어를 했었는데, 진정한 "여자"가 된 것 같아서 그것도 부러웠다. 그래서 '나는 왜 가슴이 안 자라지?' 생각하면서 남자아이들과 나의 차이점을 느끼기 시작한 것, 그게 내 기억의 첫번째 성교육이었다.

중학교에 입학해서는 성교육 강의나 비디오를 꽤나 자주 봤



었던 걸로 기억한다. 요즘 애들(?)은 성에 대해 거리낌 없이 잘 말하는데, 나 때만 하더라도 담임선생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 H.R시간에는 성교육 할 거야.”라고 말씀하시면 “어우, 뭐야~”라며 여자애들은 수줍어하기 마련이었다.(남녀공학이라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항상 편한 내용이려니 싶어서 잘 듣지도 않았거니와 섹스와 연관되는 단어나 상황을 들으면 남자애들은 히죽히죽 웃고, 여자애들은 고개를 숙이고 친구들끼리 “민망해~”라며 속닥거리기 일쑤였다.

고등학교 들어와서 성교육을 한 번 했었다. 어떤 강사분이 오셨는데 평소 같았으면 또 딴 짓 하거나 엮어져 잔을 청했을 텐데 우리 반에서 촬영을 하는 바람에 듣는 척을 해야 했다. 눈은 뜨고 몸은 강사분 쪽을 향해 있었지만 마음은 육체를 떠나 있어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역시 기억나지는 않는다.

콘돔 씹우기 · 성폭력 역할극 등 통해 성 이해

그때까지만 해도 나에게 있어 학교에서의 성교육 시간은 자는 시간 내지는 ‘딴 짓 하는 시간’ 일 뿐이었다. 그런데 나의 이런 태도를 바꿔놓는 계기가 있었으니, 바로 아하 센터의 또래지기 캠프였던 것이다.

또래지기 캠프에서의 성교육은 이제껏 학교에서 봐왔던 성교육과는 전혀 달랐다. 선생님들에 의한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또래들과 함께 어울려 놀면서 알게 되는 성, 내가 이제껏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던 성, ‘무식이 용감’이라고 감히 관심을 갖지 않았던 성을 새로이 배우게 된 것이었다.

캠프에서는 모형 페니스에 콘돔을 씹워보기도 하고, 성에 관한 퀴즈로 게임도 해보고, 데이트 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에 관해 역할극을 해보기도 하고, 포르노에 대해 찬반토론도 해보면서, 다양하고 재밌는 활동으로 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꿔놓았다. 성은 절대로 부끄럽거나 숨겨야 하는 골방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같이 나누고 즐길 수 있다 라는 것이다.

나는 운이 좋아 잘 배웠지, 실제로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대부분인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은 낯설 것이다. 하지만 왜 학교에서는 꼭 필요한 성교육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이론에만 집착하는 것일까? 학교에서 받는 이런 허접한 성교육(모든 성교육이 다 그렇다는 건 물론 아니다.)으

로 아이들이 정말 긴급한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과연 배운 것을 이용할 수 있을까?

나는 이번 글감을 받고 나서 한참 동안이나 난감했다. 성교육이라 하면, 평소에 생각하던 것도 있고 이것저것 쓸 내용이 있겠는데 에이즈라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에이즈에 관한 내용은 잘 다루지도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 또래지기 모임에서도 에이즈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래지기에서는 또래지기 회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 성에 관한 토론을 한다.) 그만큼 에이즈란 청소년들의 성과도 약간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생활에 필요한 성교육 원해

학교에서의 성교육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아하 센터에서 성교육하기를 희망하시는 선생님들과 또래지기 회원들이 함께 한 워크숍이 있었다. 그 때 우리가 선생님들께 바라는 성교육을 ‘좀더 실제적인 성교육’이라 하자 반발(?)을 하셨다.

선생님들도 좀더 유익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성교육을 하고 싶으시지만 학교의 요구에 따라 강의 방향을 맞춰나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를 원방하라고(?) 하셨다.

우리학교 교장 선생님만 하더라도 성교육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오로지 좀더 쾌적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 주시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분이시다. 학습 환경만 좋으면 뭐할까? 아이들의 내면에 있는 성에 관한 무수히 많은 고민들을 안고, 욕구를 참고 책상 앞에 앉아 꾸역꾸역 임시 공부에만 매달려 있으면,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면, 청소년기에 품었던 그 고민들, 걱정들, 알아서 해결되는 것일까?

중·고등학교 때에는 공부나 하고 대학가서 원 없이 실컷 놀면, 해소되는 것일까? 경험해 봐서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좋은 성과를 내려면 심신이 편안해야 한다. 그런데 왜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오히려 청소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만 만드는 것인가?